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은 아름답다

도전정신과 패기로 만든 회사 C4 GLOBAL

꼭 창업을 해보겠다는 도전정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철저한 시장분석으로 결국 창업에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고, 그 성공을 후배들에게 꼭 물려주리라 생각하는 벤처회사가 있다. 아예 회사 이름 속에 안전하고(Comfort), 작고(Compact), 편리한(Convenience), 가방(Case)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담아 오늘도 멈추지 않는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C4 GLOBAL이 바로 그곳이다. 목봉현 대표가 말하는 그들의 사업과 젊은 벤처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Q 창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창업은 대학을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께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 일을 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창업을 도우면서 배운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의 회사를 차리면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 것이죠. 그 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벤처에 관련된 세미나 교양과목을 다 들었죠. 물론 그러면서 전공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아직 남은 한 학기를 빼고는 전 학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맞는 동기, 후배들과 작년 8월에 C4 GLOBAL이란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Q 현재 사업 아이템인 '고기능 노트북 가방'은 어떤 제품입니까? 그리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A 저희가 개발한 '고기능 노트북가방'은 올해 1월부터 개발한 제품으로써 기존 노트북 가방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즉, 가방을 열지 않고도 키보드를 칠 수 있고 각종 포트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 전공이 섬유공학이고 이것과 연관된 아이템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 노트북 시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철저한 시장 조사와 자문을 구해 고기능 노트북 가방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제품개발은 거의 끝난 상태고 조만간 중국하청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가 국내 모 문구브랜드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이디어를 먼저 기업에 팔고 그 후에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른바 '선 주문, 후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어지고 그에 대한 이윤 창출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Q 젊은 벤처인이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벤처인이 되고 싶습니까?

A 요즘 취업난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4년간의 전공교육을 받은 능력 있는 인재들이 그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분야에 대한 인력 낭비입니다. 젊은 '도전'과 '패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젊은 벤처인이라 바로 이 도전과 패기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대학 강사를 하고 싶습니다. 섬유에 대해 공부하는 제 후배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업가들이 자기가 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듯 저는 후배들에게 이 도전과 패기의 길을 알려주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